

2002년 도정연설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

— 200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道政) 연설(연지)—

새해는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3기를 출범시켜야 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생활자치를 떠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해입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준비해온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세계인의 한마당 꽃 잔치로 승화시켜야 할 해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세계 최대시장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발전여건으로 작용하면서 충남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002년은 우리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주체 모두가 나라경제 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첫해인 금년, 충남 도정은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삼아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승의 성과를 새로운 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친절·질서·청결운동과 애항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다만 90년만의 극심한 한발 등 온갖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5년 연속 대풍을 이루었음에도 쌀값 하락으로 풍년의 기쁨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일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새해 도정방향

2002년을 맞아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한 도정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도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기술·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신바람을 느끼며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벤처기업과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서해안 시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의 쏜구간 개통은 대망의 서해안 시대가 본격 개막됨을 뜻합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우리 충남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特需)에 보다 큰 비전과 그림을 갖고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차 도계획을 근간으로 중장기적 실행프로그램을 담은 '충남 2010 정책비전'을 마련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산항·보령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의 다각적인 연계 개발을 통해 대(對) 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문화도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지혜를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로 긍지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공경을 위한 사회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6대 도정방향

가장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충남
서해안 시대 새로운 발전기반 확충
어르신(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선진 도민의식과 안정된 지역사회
혁신과 경쟁을 실천하는 일류 도정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성공적 개최

넷째, 선진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끌어낸 참여와 화합의 도민의식을 지역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로 다시 모으면서 새로운 지역안정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질서·청결 운동을 새로운 차원의 도민의식과 생활선진화 운동으로 고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큰 화합과 단합을 이루도록 힘을 쏟으면서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경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일류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이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및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도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행정품질 경영체제도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과 Single ppm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지식관리 시스템(KMC)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道의 조직과 기능을 행정수요에 따라 재설계하여 21세기형 시스템으로 정립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사기 높은 조직은 고품질 행정을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내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와 신념을 가진 프로 공무원을 발굴 육성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는 등 주요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통·숙박 등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관람객 유치활동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 때까지 치밀한 일정 관리를 통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주요 시책

이와 같은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대(對) 테러 전쟁의 여파로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민원의 일괄처리(One-Roof Service)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과 기업이 상호 협력·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을 키우는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재래시장을 위해 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상품과 관광을 함께 파는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IT와 B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전략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벌여온 '충남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산지역에 전자정보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생물소재 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하여 인삼과 생약 등을 소재로 한 BT산업 육성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천안밸리를 내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창업보육센터와 벤처투자 조합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대졸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학생 인턴십제의 적극적인 활용 권장과 함께 첨단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취업난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경제·문화·체육 등 더욱 실용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외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특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충남의 공동상표로 새롭게 개발한 '해뜰'을 전국적 상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8월 개통된 '충남 푸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농림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도매시장도 유치하여 전자상거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금산 인삼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2개에서 6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달초 중국을 방문하여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 허룽(和龍)시와 농업투자방향서를 체결한 데 대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질의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과 수출 전업농 육성 등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바다목장 조성으로 다양한 고급 어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복지 분야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이념 위에서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푸른 충남 2020'을 수립하고 청정 충남의 마스터플랜으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원별·수계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오염원 정보를 네트워크화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환경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생태관광지로 금강권 생태산업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충남도가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 6대 도정방향중 하나로 설정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의 질을 높여 보다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촉진과 재활훈련 지원을 늘리면서 청각 및 시각 장애인에 대한 무료시술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분야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문화관광과 첨단산업, 물류 등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주~서천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착공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대산항 개발도 내년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시행 기관의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집'은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토대로 공주와 부여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설로 시·군 주관 아래 조성하고, 보령·홍성·청양·태안 개발촉진지구사업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자체 수립한 장기 용수 공급계획을 토대로 효과적인 물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노후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진흥과 함께 개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창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백제역사 민속박물관과 기능촌 조성 등 19개 사업에 1천6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내포(內浦)문화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3년부터는 가시화하게 될 것입니다. 시·군 문화원이 지역 문화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 전국 최초로 사이버 향토문화원이 구축된 것을 계기로 도민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충남 인물사(人物史)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내년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월드컵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향토 문화축제와 고유의 부존자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머드축제·인삼 캐기·섬 관광·철새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선보이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고 충남에서 시작된 스승존경운동과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도 내실 있게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7.8%가 증가된 1조8천9백44억원입니다.

주변국 경기 둔화와 국내경기 부진 등 여파로 내년도 우리 道의 재정여건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 재정 기조 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내일이 되면 옛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 변혁의 파도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희망과 도전의 발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회는 그저 기다리는 자에게보다 착실히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고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창조하는데 2백만 도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21세기 새 도약 전기, 인본·경영 철학 견지 10대 중점시책 추진, 국제 꽃박람회 주력

■ 2002 도정 기조와 방향

- 인본·경영행정의 도정철학을 견지
-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성과를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폭제로 연결
- 인간적인 디지털, 매력적인 문화·관광, 환경해권 중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 총력 추진

〈상반기〉

도정 전반에 걸쳐 민선 2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도정의 역동성을 확보

〈하반기〉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도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 제시 등 대응성 강화

■ 2002 도정 중점 시책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운동 전개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시스템 행정을 통한 품격 높은 도정 실현
- '충남 2010 정책비전' 수립 및 분야별 사업 착수
- 고품질로 승부를 거는 농업 행정의 패턴 전환
- 문화·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포츠의 산업화와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확산

'21세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

충남도가 지난달 24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2002 업무구상 보고회'를 갖고 내건 내년도 캐치프레이즈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충남을 게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능과 연계 추진하는 '민·관 공동' 법인으로 제3섹터 방식의 '게임산업 법인'을 설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만들기' 운동 전개 ▲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시스템 행정을 통한 품격 높은 도정 실현 ▲ '충남 2010 정책비전' 수립 및 분야별 사업 착수 ▲ 고품질로 승부를 거는 농업행정의 전환 ▲ 문화·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포츠의 산업화와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령화 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확산 등 중점 추진 10대 시책을 선정 발표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수요와 테마관광을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곤충 생태관, 야생화단지, 반딧불 생태관, 통나무집, 향토식당, 생태학교 등이 함께 어우러진 '금강권 생태산업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인물사 연구를 통한 '충남의 정체성' 확립과 대학생들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생 초청 특강'과 '대학생 디지털 및 수출 지원반 운영' 등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계룡 지식포럼’ 설립 추진

■ 기획정보실

계룡신도시에 ‘관광휴양+지식정보교류+과학기술’이 생산과 직결되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형태의 가치 ‘계룡 지식포럼’ 설립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 충남’ 제2단계 전략이 추진돼 충남이 명실상부한 ‘디지털 지방정부’의 중심축에 설 전망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관광 특수에 대비해서는 지난 9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백제의 집’을 조기 건립키로 하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정 업무의 과학화

■ 자치문화국

내년 10월께 충남육상연맹과 공동으로 ‘봉달이 마라톤코스’에서 전국대회 규모의 5km(초·중·고, 일반), 10km(남녀), 하프(가족단위), 풀 코스(남녀) 마라톤 대회를 연다.

또 내년 7월부터 인터넷 고지제 등 납세자 위주의 눈높이식 운영과 적극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로 지방세정 업무의 과학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역 향토축제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삼·모시·머

드축제 등 우수 관광축제와 백제·해미읍성 축제 등 우수 민속축제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화훼’ 전략산업으로 육성

■ 농림수산물국

품질관리규약을 제정, 포장·규격·균질화된 농특산물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단위의 고유 브랜드(‘해필’)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동서천 냉각쌀, 청양 바이오이온쌀 등 ‘기능성 쌀’ 생산을 육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2개~6개 품목)을 확대 시행한다.

또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를 위해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2002 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산업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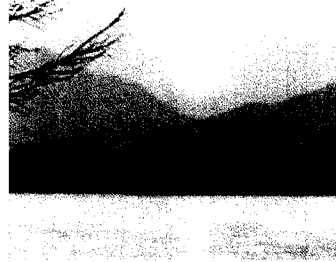
농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해외 농업투자에 대한 도내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농촌정보화를 위해 ‘디지털 농정 10대사업’을 추진한다.

푸른 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 복지환경국

인본(人本)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과 25개 복지관에 ‘사랑의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푸른 충남 건설을 위해서는 ‘푸른 충남 2020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푸른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클리닉 추진

■ 건설교통국

백제문화권(19개 사업, 1천64억원)과 개발촉진지구 사업(20개 사업, 2백29억원)에 대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포(內浦)문화권 종합개발과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의 지구 지정과 조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친(親)환경 건축클리닉을 통한 '녹색도시 만들기'와 전통마을의 '신 농촌 만들기', 실시설계부터 환경·생태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에코-로드(eco-road) 만들기', 금강의 옛 모습을 찾는 '생태하천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

■ 경제통상국

IT(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건평 5천평 규모의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02~05년)와 천안밸리에 영상미디어기기사업화지원센터(02~06년)를 각각 설립한다.

특히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하고 경제통상국에 '첨단산업과'를 신설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2천억에서 3천5백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벤처기업 2천개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을 조성한다.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국제교류의 전환점으로 삼아 박람회 기간중 2박3일 일정으로 교류단체간 단체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19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 소방안전본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중 홍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긴급구조 재난 대응체제 구축과 119신고자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119소방정보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완벽한 재난관리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립

■ 공보관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도정 홈페이지에 다양한 도정소식을 홍보하고 사이버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능동적인 도정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도정신문'에 도핵심사업 특집과 독자투고란을 확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주민 공개감사제 시행

■ 감사관실

'청렴 서약제'를 내년 1월부터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을 운영한다.

또 재정 투·융자사업 등 5개 분야에 '정책(성과)감사'를 도입하고 '명예감사관·자문관제' 확대와 주민 '공개감사제'를 실시한다.

화목한 가정 가꾸기 추진

■여성정책관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 제1의 '유관순상(賞)' 수상자를 내년 3월1일 발표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화목한 가정문화 가꾸기를 위해서는 '평등 부부상' 발굴 시상과 한 부모 가정 '화합 한마당 잔치'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다면평가제로 전환

■총무과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상·하급자와 동료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多面) 평가제' 도구를 개발하고 도정의 지속적인 디지털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공무원 성공의지 다짐 마라톤 대회(5km)'를 내년 3월 중순께 박람회 전시장에서 가진다.

1백가지 꽃 음식 개발

■농업기술원

전국 최고의 충남 쌀 생산 등 13대 작목의 목표관

리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농산물 소비촉진의 수요를 창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서는 국내 개발 신품종 꽃 전시(02. 4. 26~5. 19)와 1백 종의 꽃 음식을 개발 전시(02. 5. 3~6)한다.

정예 공무원 양성반 통합

■공무원교육원

정예반과 여성 초급간부 양성반을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으로 통합해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생 미추천 시·군에 대해 '교육생 선발 네거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산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어 연설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먹는물 검사항목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MMR(홍역, 풍진) 유행 예측과 인플루엔자 감시 사업 등의 신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인과 함께 먹는 물 민·관 합동 채수(採水)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항목 수를 내년 77종에서 오는 2005년까지 8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1세기 비전 초점, 투자사업에 1조 3천억

총 1조9천2백43억 ... 계층별 수요자 중심 편성

(단위: 억원)

계	19,243	100	
일반회계	15,653	81.3	
특별회계	3,590	18.7	
〈공기업특별〉	2,173	11.3	
·도공영개발	126	0.7	
·계룡공영개발	528	2.7	
·지역개발기금	1,519	7.9	
〈일반특별〉	1,418	7.4	
·의료보호기금	763	4.0	
·안면도관광지개발	83	0.4	
·금강종합개발	530	2.8	
·청양대학	42	0.2	

2002년도 예산은 「人本과 經營」을 도정 철학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신나는 충남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검증」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금년 4. 26 ~ 5. 19 개최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 및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행·재정적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신나게 사업하는 충남」 만들기 및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그리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충남발전」의 기반조성,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보장 및 「선진도민의식」의 발양과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활동에 적합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신나게 企業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도로망 확충, 지역경기활성화, 국제통상교류 및 공업기술향상 등을 위하여 4,506억원을 투자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지원	517	· 지역경제기반조성	48
· 도로망 확충.....	3,514	· 공업기술향상도모	74
· 공업단지조성	121	· 노사화합증진	1
· 실업대책추진	222	· 국제통상교류 확대	9

21세기 상업농시대를 맞아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농업인육성, 선진농산사업지원, 농업생산기반확충, 축·수산업 기반구축등 4,201억원을 투자합니다.

· 농정유통·프로농업인육성.....	615	· 축산진흥	209
· 농산사업지원	622	· 해양수산물기반구축	312
· 농업생산기반확충	1,799	· 산림자원화	644

21세기를 선도하는 경쟁력 높은 「초일류 충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충남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 문화예술창달, 체육진흥,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5,761억원을 투자합니다.

· 원활한 공영용지개발	654	· 문화예술창달	337
· 오지·도서및소규모지역	1,410	· 관광사업육성	248
· 「푸른충남실현」 환경보전	480	· 체육진흥	187
· 맑은물 보전.....	2,255	· 백제문화권개발	190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도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 확충·운영,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1,749억 원을 투자합니다.

· 경로연금지급	310	· 경로당운영	36
· 도민의료서비스제공	1,019	· 경로식사제공	19
· 노인복지시설보강·운영등	102	· 노인건강관리	20
· 노인교통수당지급	215	· 노인 주·단기보호	4
· 노인복지회관 신축	24		

참여와 화합의 도민의를 충남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로 재결집하여 글로벌시대 「선진도민의식」 발양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 장애인 자활보장, 청소년·여성사회참여, 치수방재 구호체계확립, 민방위 재난 관리 등 4,553억원을 투자합니다.

· 저소득층생계보장	1,790	· 사회복지·보훈단체육성	43
· 청소년육성	1,138	· 치수방재·구호체계확립	491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591	· 민방위·재난관리	25
· 장애인 자활보장	382	· 소방력보강	93

개혁과 경쟁시대를 맞아 창의와 역동성을 갖춘 선진행정 시스템을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행정 내부혁신, 행정전산화, 공명선거지원, 선진농업 기술향상,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 422억원을 투자합니다.

· 행정내부혁신	58	· 통신기능보강	18
· 기반선거지원	50	· 도정홍보강화	11
· 행정전산화	62	· 직무수행능력배양	5
· 선진농업기술지원	210	· 도민정보화교육	8

예산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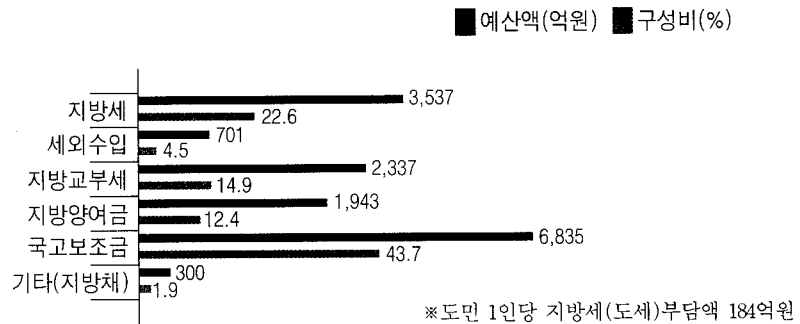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8,851	10,755	16,045	17,568	19,243
일반회계	3,538	7,162	12,705	14,083	15,653
특별회계	5,313	3,593	3,340	3,485	3,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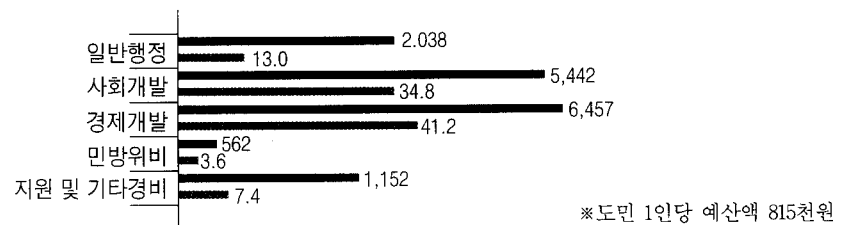
일반회계 예산

세입·세출 계 예산액 15,653억원, 구성비 100%

세입



세출





2002년도 분야별 투자내역

노인복지 중시 400억원 배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예산의 13.7%인 2246억원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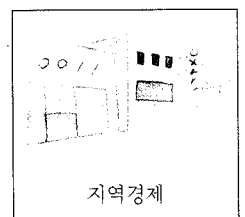
지난해와 올해는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했으나 내년에는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

노인복지를 위해 401억원 저소득생계보장 1521억원 장애인 재활보장 298억원, 사회복지시설, 단체육성에 26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中企 경쟁력 강화 250억원 편성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예산의 4.6%인 746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에 250억원, 공업단지 조성 114억원, 실업대책 153억원, 원활한 교통대책 124억원, 지역경기 활성화 33억원, 국제통상교류 9억원, 공업기술향상 62억원, 노사화합증진 1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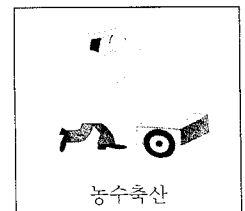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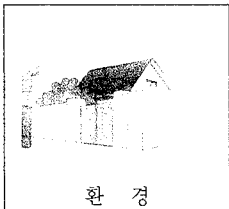
풍요로운 선진 농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18.6%인 3041억원이 편성됐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유통과 경영지원에 314억원, 축산진흥분야에 7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농업생산증진 489억원, 해양수산 기반확충 236억원, 농업생산 기반확충 1549억원, 산림지원화 육성을 위해 382억원이 투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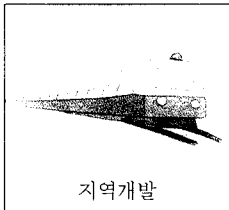
신년 특집



환 경

2100억원 투입 '푸른충남' 실현

맑고 깨끗한 환경과 도민들을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12.8%인 2100억원이 편성됐다. 푸른 충남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232억원, 치수방재사업 458억원, 맑은물 보전 1392억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18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지역개발

공영택지개발 예산 654억원

유기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경영개발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29.8%인 4883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3286억원, 공영택지개발 654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4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

백제권 개발사업 172억원 반영

21세기 새로운 충남발전 기반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4.3%인 70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창달에 171억원, 도민체육향상 133억원, 문화예술의 특성화 61억원, 백제문화권 개발 172억원, 관광산업 164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소년 공간확충 등 1111억원

건강하고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6.8%인 1111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 권리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083억원, 문화감수성 함양 3억원, 청소년공간 확충 17억원, 청소년 복지지원 8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22억원 투입 사회참여 확대 모색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건강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투자예산의 71%인 1160억원이 책정됐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22억원, 도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908억원, 능력개발사업 8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213억원, 요보호여성 생활보장 9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지방선거비용 49억원 준비

혁신적인 실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2.3%인 390억원이 편성됐다.
 농업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112억원, 소방행정력 보강 84억원, 행정서비스 향상 58억원, 행정전산화 55억원, 도 정홍보 11억원, 통신기능보강 16억원, 지방선거 수행 49억원,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해 5억원이 책정됐다.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자료제공·편집부〉